

원발성 자연기흉의 폐기포 절제시 비디오흉강경수술과 정중액와 개흉술의 비교

서울위생병원 흉부외과
김창희

최근 비디오흉강경의 발달로 여러 흉부 질환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면서 개흉술과 여러면에서 비교되고 있다. 특히, 원발성 자연기흉으로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흉강경을 이용한 방법과 정중액와 개흉술이 비교된다.

1994년 6월부터 1995년 7월까지 본 위생병원 흉부외과에서 원발성 자연기흉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하여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받은 35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같은 기간동안 정중액와 개흉술을 이용한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받은 35명의 환자를 대조군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실험대상 환자를 연령과 성별, 수술적응증, 수술시간과 술후 흉관 삽관기간, 술후 재원기간, 술후 진통제 투여 용량과 투여 기간 등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때, 진통제의 투여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Tarasyn 30mg을 근주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 결과에서, 연령분포는 실험군에서 최저 17세에서 최고 69세로 평균 29.4 ± 15.7 세였고, 대조군에서는 최저 17세에서 최고 45세로 평균 22.4 ± 4.6 세였다.

수술의 적응증은 실험군에서 재발 7례, 지속적 공기 누출이 16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4례 그리고, 과거 반대측에 기흉의 과거력이 있던 경우 2례와 흉부 X-선 사진상 폐기포를 보인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수술한 경우가 6례 있었고, 대조군에서는 재발 9례, 지속적 공기 누출이 13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5례 그리고, 과거 반대측에 기흉의 과거력이 있던 경우 2례, 흉부 X-선 사진상 폐기포를 보인 환자에서 예방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6례 있었다.

성별분포는 실험군에서 남자가 80%, 대조군에서 84%로 대부분 남자에서 호발하였다.

평균 수술 시간은 실험군에서 102.1 ± 47.4 분, 대조군에서 108 ± 34.6 분으로 비디오 흉강경으로 수술한 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술후 흉관 삽관 기간과 술후 재원 기간은 실험군에서 평균 2.7 ± 0.94 일과 4.43 ± 1.2 일이었고, 대조군에서는 평균 5.0 ± 2.5 일과 6.8 ± 2.6 일로 실험군에서 현저히 짧았다.

술후 진통제 투여 기간과 용량은 평균 2.57 ± 1.2 일/명동안 평균 2.8 ± 4.3 회/명 근주하였고, 대조군에서는 평균 3.7 ± 1.4 일/명동안 평균 9.7 ± 4.7 회/명으로,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한 경우에서 진통제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술후 합병증은 실험군에서 재발이 1례로 산소 흡입과 안정으로 치료할 수 있었고, 대조군에서는 술후 17일 동안 지속적인 공기누출이 1례이었다.

위의 결과상, 기흉의 재발 방지를 위한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개흉술에 의한 경우보다 술후 재원기간과 술후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고, 술후 합병증 발병에서 개흉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